

*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		다함께
*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		다함께
기도 Prayer		윤원신
*주님의기도 Lord's Prayer		다함께
*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	고후 3:1-3	다함께
말씀선포 Sermon	알고 읽는 바라	유형선
*찬양 Praise		다함께
*봉헌&축도 Offering&Benediction		유형선

*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
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.

주일대표기도

6월 11일	6월 18일
김현아	류외자

예배시간안내

주일예배	오후 2시
아침묵상	(화-금) 매일 오전 6시 (Youtube)

공동기도제목

1. 말씀 안에서 -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
2. 나라와 민족 -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
3. 교회와 선교 -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

이 시대 진짜 교회가 있는가?

가끔 뉴스에 유명한 연애편이 자살했다는 충격적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연애편이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다니던 교인이었다고 밝혀질 때입니다. 생각보다 그 숫자가 많습니다. 그 뉴스를 접한 어떤 청년이 제게 물었습니다. “목사님, 교회가 그들을 자살하지 못하게 막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하는거 아닌가요?” 몹시 극단적이고 불쾌한 질문이었지만 사실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.

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혐오스럽게 바라보는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에 놀랍지도 않습니다. 그런데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.

“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기로 했어요”

저는 이 말에 충격을 받고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.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니...도대체 교회들이 어떻게?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길래? 너무나 화가나고 너무나 부끄럽지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입니다.

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?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이 아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?

오래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답은 하나였습니다.

복음, 말씀, 사랑, 십자가...

무언가를 하기 위해 만들어내고 포장하고 드러내기 위해 애쓰기 보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말씀의 생수 속에서 받은 은혜를 겸손히 흘려보내는 삶의 예배만이 본질임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삶...

오직 예수, 오직 믿음, 오직 성경...

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 내려놓기...부셔버리기...버려버리기...끊어버리기

‘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다시 교회 나가기로 했어요’가 고백되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겸손히 엠편려 기도합니다.